재외동포, 역사 · 문화 체험은 전주에서

모스크바 한국민족학교 엄 넬리 교장, 2박 3일간 방문 모국 역사 문화 탐방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및 12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17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가졌다. 송 하진 지사는 "현 정부의 '혁신도시시즌 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지역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전공공기관에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전주시가 전 세계 176개국에 분포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등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러시아 유일의 한민족학교인 1086한국민족학교를 설립한 엄 넬리 교장(Nelly Em - 러시아명 엄니콜라예브나, 77세)은 14일부터 2박 3일간 전주를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한다.

엄 넬리 교장은 이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하고, 전주의 역사와 문화 교류방안 등 러시아 도시와 전주시간 교류.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4세인 엄 넬리 여사는 지난 1991년 51세의 나이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본인의 정체성에 원통해하며 모스크바로 돌아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동포가 없도록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설립했다.

러시아 정규 초중고 통합 교육과정을 따르는 1086학교는 한국어 교육 외에도 한국역사와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절반이상이 러시아 최고명문에 진학하는 명문학교로 성장했다.

엄 교장 외에도 전주에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려는 재외동포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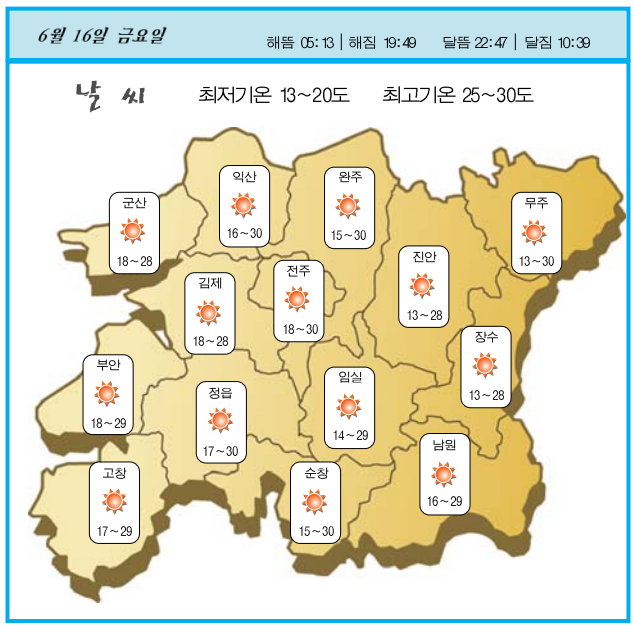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운영, 49명에게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의 세부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600억원을 들여 전주시 일원에 국립 재외동포 교육과학단지와 국립 해외동포 교육관, 한국전통예절관과 전통숙박 체험관, 한민족 이주 민속박물관, 놀이공간 등을 갖춘 재외동포 전통문화 교육기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교육기지화 사업이 추진되면, 수많은 재외동포 2.3세들이 전주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 등을 배울 수 있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전주를 알릴 민간 홍보대사가 돼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라며 "재외동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맞춤형 지도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관련 예산사용 지침을 일부 개선해 기초학력 더딤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15일 도교육청은 두드림학교, 느루동행학교 등 기초학력 더딤학생에 대한 지원예산과 관련, 기초학력 더딤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사 간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초학력 더딤학생에 대한 1:1 혹은 1:소수의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사 등 구성원 간의 협의를 활성화해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했다.

이를 위해 복합적 원인에 의한 학습더딤학생이 많은 두드림학교의 경우 7~8%로 협의회 또는 관련 연수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도교재는 제공된 늘품이 자료 등을 활용하되 학생 수준을 고려한 소량의 학생 맞춤형 학습교재 구입은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강화를 위해 교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내부강사의 참여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현직 교장과 교감은 교육기부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두드림학교와 느루동행학교 등이 있다.

/정해은기자

"고 홍수연 학생 현장실습 중 사망사건 책임 통감"

김승환 교육감, 유가족 · 대책위 관계자 등 만나 사과 "같은 일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4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수연 학생의 아버지와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접견실에서 고 홍수연 학생 부친과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교육감으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은 홍수연 학생만의 일이 아니라 특성화고, 일반계고 학생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다"면서 "사전에 학생 현장실습과 관련된 문제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의 초기대응에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고 홍수연 학생의 입장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준 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들을 설명하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제2의 홍수연 학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파견근로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나타낸 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도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홍수연 학생의 부친은 "그동안 서운한 감정도 많았지만 이제 다 내려놓았다. 교육감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 믿겠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 수연이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도 "교육감께서 진심을 다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교육감이 약속하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중고교 교원 ·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연수

도내 중·고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참학력전문가 역량강화 연수'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연수는 참학력 신장을 목표로 올해로 3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컨설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학교혁신과 새정부 교육정책'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연수에서는 연수생 80명 외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맞아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원과 전문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등 참학력 전문가 연수는 권역별 연수, 도교육청 집합연수, 1박2일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올해 12월(총 10차시)까지 계속 진행된다.

참학력지원단은 새로운 학력에 걸맞는 미래역량을 교사가 먼저 갖추기 위해 참학력 역량강화 연수 외에도 참학력 학교 컨설팅, 공동연구·학습·공동실천을 원칙으로 교사 실천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